

가장
심플한
가면

안경

Glasses

글 이영경

안경은 보는 것을 담당하는 최전방의 도구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마법과 같은 기능으로 한때 악마의 도구로 불리기도 했다. 안경은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며, 이미지를 바꾼다. 보라, 신문사의 수줍은 기자 클락 켄트는 와이셔츠를 찢고 안경을 벗음과 동시에 무려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된다.



안경은 빛을 모으거나 분산하기 위해 수정이나 유리를 갈아서 만든 렌즈로부터 시작된다.

네로 황제의 에메랄드빛 돌

안경은 렌즈로부터 시작된다. 렌즈는 빛을 모으거나 분산하기 위해 수정이나 유리를 갈아서 만든 투명한 물체다. 렌즈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로마제국의 네로 황제다. 그는 글래디에이터의 싸움을 더 잘 보기 위해 에메랄드빛 돌을 사용했다. 녹색 빛이 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구체적인 검증 자료는 없지만 이것이 선글라스의 시초라는 설이 있다. 렌즈는 고대시대부터 있었으나 그 쓰임새는 태양열을 모으는 용도가 주였다. 중세시대에는 시력이 저하된 이들에게 마사지를 하거나 걷기, 소량의 식사와 쭉이 들어간 술 마시기 등의 민간요법이 전해졌고, 눈을 위해 주문을 외우는 미신과 같은 방법이 권장되기도 했다.

바이킹의 무덤(8~11세기)에서 발견된 렌즈 역시 태양열을 모으는 확대경으로 쓰인 것이지만 이 무렵 렌즈를 통한 시력 보조 가능성을 말한 이가 있다. 아라비아의 수학자인 알하젠이다. 그는 연마한 렌즈를 착용하면 시력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최초로 말했으나, 현재와 같이 눈에 직접 렌즈를 씌우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두 세기가 더 걸렸다.

영국 VS 중국, 안경의 '최초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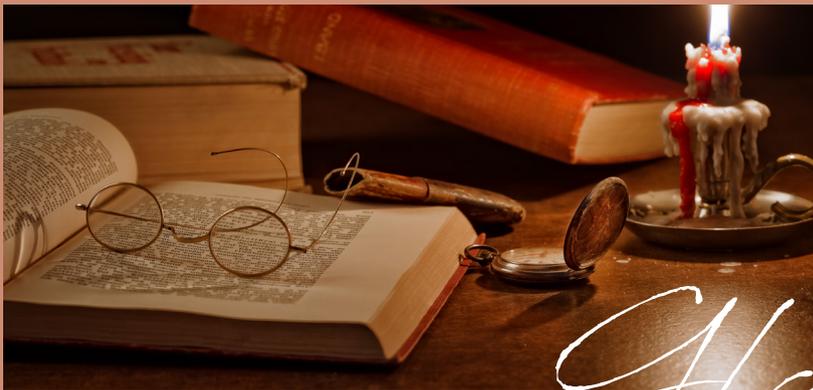
광학적 효과가 있는 안경의 등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가장 신뢰있게 여겨지는 것은 영국과 중국에서 기인한다. 먼저 1268년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로저 베이컨이 광학 목적으로 렌즈를 활용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 "만약 누군가가 수정이나 유리 또는 다른 투명한 물체를 통해서 글자나 다른 작은 물체를 본다면, 그것이 구슬 모양보다 얇은 절편이며, 볼록 모양이라면 문자는 훨씬 잘 볼 수 있고 더 크게 보일 것"이라고 기록했다.

또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에는 중국에서 안경을 사용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는 1271년에서 1295년까지 중국 원나라에서 관직을 맡아 머물렀으며 이때 본 관습과 생활상을 동방견문록에 기록했다. 그중 안경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원나라의 늙은 신하들은 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볼록 렌즈 안경을 끼고 있다”고 남겼다. 몽골을 여행한 기욤 드 뤼브루크 역시 중국인이 안경을 낀 것을 관찰했으며, 그가 귀국 후 베이컨에게 말해 베이컨의 저서가 탄생했다는 견해도 있다.

안경의 '신분상승' 이끈 책의 대중화

오늘날의 안경에 기초가 된 것은 13세기, 베네치아 북쪽의 작은 섬 무라노 유리 공장에서 발명된 시력 보조기이다. 이 시기의 베네치아는 무색 투명 유리를 만드는 유일한 곳이었다. 당시 장인들의 유리 제조 기술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화학식은 일급비밀이었다. 13세기 말, 유리공들은 볼록 렌즈를 연마하여 손잡이가 달린 나무 고리에 끼우고 고리들을 리벳으로 연결했다. 드디어 최초의 안경이 제작된 것이다.

안경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였다. 활판인쇄로 출판물이 범람하자 사람들은 안경을 찾았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사물을 분간할 수만 있으면 먹고사는 데에 지장이 없었지만, 책이 대중화되면서 책을 읽을 수만 없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도태를 의미했다. 이전까지는 근시가 적었으며 노안으로 인한 원시로 인해 볼록 렌즈가 주로 보급됐으나, 책 수요가 증가한 이후에 난시가 늘어났으며 16세기 초 무렵에는 근시용 오목 렌즈가 등장했다.



활판인쇄로 출판물이 범람하자 사람들은 안경을 찾았다.

Glasses



얼굴에 쓰고 다니는 컴퓨터 '스마트 안경'은 차세대 모바일 디바이스로 떠오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Smart

안경이 지닌 개념의 대전환

안경의 극적인 변화는 20세기에 이뤄졌다. 이중초점, 다중초점렌즈가 개발됐고 실용성이 대두되면서 안경 쓰는 걸 꺼려하던 풍조도 사라졌다. 여기에 장식성이 가미되면서 안경 디자인이 본격적인 유행을 탔다. 두껍고 투박한 안경을 쓰고 다니며 안경을 지성인 계층의 특권으로 재정의한 근대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 히피 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던 존 레논의 가늘고 둥그란 안경테, 스티브 잡스가 사랑했던 무테 안경 등은 개성과 심벌로서 사회문화적인 진화를 거듭해왔다.

오늘날 진열장에는 엄청난 수의 다양한 안경테가 진열되어 있다. 문제는 전통적인 생산방식으로 만들어 판매되고 있는 현재 모델의 약 40%가 팔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안경 역시 첨단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는데, 이는 기능뿐 아니라 제작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안경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개성과 선택을, 제조사에게는 비용 절감을 안겨주며, 맞춤형으로 거의 폐기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안경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이메일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얼굴에 쓰고 다니는 컴퓨터 '스마트 안경'은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패션용 선글라스를 하이테크와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차세대 모바일 디바이스로 떠오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를 차단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는, 안경 개념 자체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